

# 월/요/광/장

김영용



금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현재 핵심 경제 이슈는 경제민주화이다. 이른바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개혁이 요체인데, 그 중에서도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출자구조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기업은 운영하도록 규율하는 메카니즘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총수는 지배주주이자 최고 경영자이다. 그런 만큼 다른 어떤 주주보다도 이해관계가 가장 크게 걸려 있어 기업의 흥망성쇠에 가장 노심조사하고 주인-대리인 문제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경제민주화의 허상

발생시키지 않는다. 또한 총수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다. 지분의 다수는 문제가 아니다.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다면 계열사 간 출자구조 또한 문제 삼을 것이 없다.

라 사업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 그룹인 삼성과 현대차는 순환출자 구조(A기업→B기업→C기업→D기업→A기업)로 되어 있다. 출자구조를 문제 삼을 논거가 없는 마당에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계열사 간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규제를 다시 도입하려는 것도 논거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이는 투자 위축과 외국 자본에 대한 자국 자본의 역차별,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의 기능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경쟁의 양상이 기존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해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업종 자체를 대체해버리는 방식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의 기업들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들지는 소비자들에 의해 판가를 내는 것이 몇 사람들에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한다는 주장도 거래란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는 일방이 다른 일방을 착취할 수는 없다. 예전에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페론 대통령 집권 이후 크게 망가졌다. 페론 대통령이 사람들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제한하고 분배 우선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기업이 이윤은 소비자들에게 봉사한 대가이다. 돈을 많이 벌고 기업집단이 성장한 것은 소비자들에 크게 봉사했기 때문이다. 그런 우리 기업들은 지금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잘 나가려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일이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법조칼럼



정인기

지금도 필자의 어머니는 대형마트가 아닌 재래시장을 자주 찾으신다. 명절 때면 그 횡수는 늘어나고, 필자도 짐을 옮겨 드리기 위해 반 강제적으로 동원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 추석 앞둔 재래시장

그러나 어머니는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기 위해 여러 상점을 둘러보며 꼼꼼하게 물건을 고르고, 어쩌다 제대로 흥정이 돼 좋은 물건을 싸게 사시는 경우 어린이처럼 좋아하셨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갈수록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점포가 속속 들어서 중소 상인들의 숨통을 조급조급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자주 찾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을 하기도 한다.

송을 제기했고, 급기야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영업제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조례의 무효를 판결했다. 그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다수의 관련사건에서 해당 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려 대형 유통업체의 손을 들어 주자 이들은 관바로 영업제한 등을 받지 않고 정상영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 기고



신춘자

치과대학 교수 한분이 타구를 배우려고 제자와 함께 내 타구교실에 오셨다. 타구를 가르치다가 휴식시간에 수박을 먹게 되었는데 나는 평소처럼 곱장 씨가 박힌 빨강 속만 먹었다. 그러나 교수님은 수박의 진녹색 줄무늬의 알박한 곱장질만 남겼다. 언젠가 타구동호인 모임에서 수박을 먹던 중 모 기관장님이 알박한 곱장질만 남긴 그 수박곱질과 너무나 똑같았다.

## 가르치고 배우는 친구

나는 생선 머리를 고아서 찌꺼기를 걸러내고 찹쌀 죽을 끓여서 김치를 담근다. 그렇게 담근 김치가 맛있다고 칭찬을 들을 때는 쓰레기로 버리려는 김치머리를 모아다 김치공장을 운영하면 돈을 벌 것 같아 김치공장을 만들 구상을 해보기도 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삼형제 아들을 두고, 퇴직교수 아내로써 적지 않은 나이에 글을 쓰면서 타구를 가르친다. 그리고 육상에 흠을 올려서 하늘 텃밭을 만들어놓고 과일과 관엽 모퉁을 꾸릿이로 키우고 직접 달콤한 무화과를 수확하여 먹는 재미가 있다.

사건뿐만이 아니었다. 나에게 타구를 배우는 그분의 제자와 함께 초대받은 교수님 주택은 340명의 대지에 폭주로 건축용 고급 양육이었다.

10년 전부터 기른 애완견과 그 새끼까지 두 마리를 기르면서 정원은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었다. 두럭을 만들어 간간이 토마토랑 여러 가지 식 재료 과일과 채소도 손수 심고 가꾸었다. 별레 먹은 과일이나 음식물 쓰레기로 기른 실크 오물게는 틀새와 사이총계 먹이를 나누어 먹고 있었다. 오물게가 자라고 있는 그 옆 닭장에는 토종닭이 알을 낳았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면면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원고든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 시·설

### 방법 비상에도 잇단 성폭행, 경찰은 뭘하나

방법 비상령 속에 광주와 해남에서 잇따라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나주 초등학교 성폭행 사건 이후 경찰의 불심검문이 부활하고 순찰이 강화됐지만 도심에서 또다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6일 오후 11시25분께 광주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 옆 공터에서 A(15·고1)양이 한 남성에 끌려가 근제 원동 공사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큰길에서 불과 30여m 떨어진 곳이라고 한다. 최근 치안강화대책에 따라 경찰이 총력을 기울여 순찰을 강화하는 와중에 범인은 보란듯이 경찰이 순찰하는 인근 도로에서 미성년자를 납치해 성폭행한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사건 당일 순찰을 했지만 고정근거가 아니라 도보로 잡어 가며 순찰하는 것이라 발견하지 못했다. 미안하다”고 말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순찰 자체가 극히 형식적이고 허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셈이다. 또 7일 오후 5시 20분께 해남군 해남읍 터미널 부근에서 성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이모(28)씨가 B(12·여)를 성폭행하려다 인근 주민이 불쌍아 경찰에 넘겼다고 한다. 이씨는 이날도 해남보호관찰소에서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B양을 성추행했더니 딸뎌이 막힐 따름이다. 방법 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경찰을 비롯 연이어 성폭행 사건이 터지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딸을 둔 부모의 입장에선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은 치안을 더욱 강화하고 범인을 서둘러 검거해야 한다. 성범죄 무방비 사회라면 경찰이 직무를 하고 있는 셈이다.

### ‘성범죄 유발’ 성인 PC방 관리 강화해야

끔찍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나 성인 PC방 등 성범죄 유발 환경은 여전히 단속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다. 작년까지 음란물이 태반인 성인 PC방이지만, 자치구의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돼 있는 실정이다. 성범죄 차단을 위한 제도·환경의 재정비가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본보가 성인 PC방을 취재한 결과, 칸막이 안 PC에는 성적유구를 자극하는 음란물이 즐비해 성범죄 유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PC를 켜면 ‘야동’(야한 동영상) 폴더와 함께 성인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이 등장한다. 폴더 안에는 수천개의 야동이 국가별, 연령대별, 종류별로 정리돼 있다.

특히 다수의 남성이 여성 1명을 납치해 성폭행하는 아동 등 범죄의 동력을 자극하는 동영상도 많다. 나주 초등학교 성폭행범 고중석도 성인 PC방에서 아동 음란물을 즐겨 본 것으로 밝혀져 성인 PC방이 성범죄 총동 유발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광주지역 성인 PC방 업주 8명이 음란물을 상영하다 9일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문제는 성인 PC방이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처벌규정이 약하고, 행정처벌과 연계되지 않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음란물을 상영하다 적발되더라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고, 행정처벌 등은 받지않아 업주들이 틈만 바빠 재영업하기 일쑤다.

## 無等鼓

진실한 우정의 대명사로는 관포지교(管鮑之交)가 첫 손가락에 꼽힌다.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절친’이었던 관중(管仲)과 포숙아(鮑叔牙)가 나는 서로를 배려하는 사임을 가리킨다. 사(史記)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동업으로 장사를 하다 관리가 되면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 관중은 군주인 양공의 공자(公子) 규(糾)의 보좌관이 됐고, 포숙아는 규의 이복 동생 소백을 섬기게 된 것이다. 그 무렵 양공의 사촌 아우 공손무지가 양공을 시해하고 임금 자리를 빼앗는 사건이 발생해 둘은 분의 아니게 정적이 되고 말았다. 포숙아와 함께 먼저 귀국하여 비어 있는 임금 자리를 차지한 소백(桓公)이 관중을 죽이려고 하자 포숙아는 “천하의 주인이 되려면 관중을 발탁해야 한다”고 간곡히 진언한다. 관공은 건의대로 관중에게 대부 벼슬을 내리 제사를 맡겼고, 그 결과 여러 제후들을 굴복시키고 패권을 쥐게 되었다. 포숙아는 관중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했고, 관중은 그런 포숙아가 고마워 곧잘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를 낳아 준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아다” 두 사람의 우정이 2500년이 넘도록 세인들의 표상으로 전승되는 것은 천행이었을 때부터 부끄러워 된 뒤까지, 세상의 형편(時勢)을 떠나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도태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준길 공보위원이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 김대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 불출마’를 종용할 의욕이 제기됐다. 서울대 법대 86학번 동기로 검사 출신인 두 사람의 공방은 ‘우정론’과 ‘사찰론’으로 변하면서 대선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주군이 다른 두 사람이 이른 아침부터 전화통화해 대선과 뇌물, 여자 등의 민감한 대화를 격의 없이 나눌 만큼 막역한 사이(莫逆之友)였는지는 의문이다. 정적 제거나 정치공작에 이용하려 했다면 ‘빛나간 우정’일 뿐이다. /정후서 정치부장 who@kwangju.co.kr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용·근
본부장인 申·浩·榮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기1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대표 FAX 222-649) 여론채우부 2200-621
(대표 FAX 222-4918) 2200-621
(대표 FAX 222-4918) 2200-693
(대표 FAX 222-4918)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신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점망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지 탄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